

프랑스 무용 연습실 지원정책과 창작환경

장인주 무용이론가

culture | art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 연습실 대여를 위한 지원액의 규모나 심사기준보다도 프랑스인들이 추구하는 예술가 중심의 꾸준한 지원체계이다. 무용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는 그 터전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가 이를 잘 실천한 덕에 지금의 문화대국을 이룩한 것이 아닐까.

프랑스의 문화정책

1959년 드골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단결의 가치 창조’라는 국가건설의 목표에 따라 프랑스는 처음으로 문화성 내에 문화를 전담하는 전문부서인 문화부를 만들었다. 앙드레 말로가 초대 장관을 맡을 당시 발표한 “인류나 프랑스가 만들어 낸 주요 작품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에게 인식하게 하고, 프랑스 문화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며, 이러한 문화재를 풍부하게 하는 예술작품과 정신의 창작활동을 북돋아 주도록 한다”는 취지는 그의 10년 장관 재직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지금의 프랑스 문화정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문화재 보존, 예술창작활동지원, 예술교육 보급 전달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정책은 공공정책의 대표적 사례로서 예술과보호 현상으로 인한 예술가 자생력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준민간 문화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비정책 환경과 비교했을 때 예술가는 이를 단점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피보호자로서의 편이함에 당연히 손을 들게 된다. 프랑스는 무용예술에 있어서의 작업실과 관련한 창작환경도 이러한 프랑스적인 특성이 기반을 이룬다. 무용에서의 작업실이란 안무를 위한 연습실을 말한다. 따라서 그 규모는 타예술 장르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것이다. 프랑스는 1960년대 말로가 주장한 ‘예술창작활동지원’ 항목 중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조건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이 대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연습실 지원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말로는 ‘센 나시오날(scènes nationales)’ 즉 ‘전국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문화의 집(Maisons de la culture)’ ‘문화발전센터(Centre du développement)’ ‘문화활동센터(Centre d’action culturelle)’로 구성된 공연예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의 대중화를 꾀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는 세분화된 구조를 합쳐 총 60여 개의 '센 나시오날'이 존재하며, 1991년 협회의 성격을 띤 법을 실행해 문화활동기관(Etablissement d'action culturelle)으로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부는 '센 나시오날' 운영비로 1993년의 경우 공공문화 예산 총액 733억 프랑(11조 7280억 원) 중 195백만 프랑(약 3백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프랑스 국가 총 예산의 1%를 차지하는 문화부 예산과, 그 예산의 36% 내외를 차지하는 공연예술 분야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미테랑 사회당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산은 기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영화와 시청각 분야에서의 공공관여의 확대, 도서관 예산의 확대, 해외문화 교류의 증가, 수도 파리의 대형건물 건설 등에 투자했으며, 무엇보다 늘어난 예산을 기반으로 지방문화국(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을 설립하는 등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이는 1982년 제정된 드페르법에 의해 제도화된 탈중앙집권화의 한 예로서 '정부가 문화의 중심'이라는 관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한 데 대해 이를 정부가 직접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적극적 실천방안이었다. 지방문화국은 중앙 문화부의 지방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région), 도(département), 읍(commune) 등의 프랑스 지방행정 단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전개라는 방향설정에 따라 사회주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현재는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 부분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액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 내부의 구조 변화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음악과가 창설되었고, 그후 '음악, 오페라 및 무용과'로 세분화되었다. 무용은 이러한 체계 속에서 1984년 기존의 무용단 4단체를 수용한 15개의 국립무용단(Centres Chorégraphiques Nationaux, CCN)을 창단했다. 이 조직은 안무가들이 주축이 되는 행정체계로서 프랑스 무용이 새롭게 부흥기를 맞게 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19개의 CCN이 있으며, 각 단체마다 상주 안무가 즉 단장을 임명하고, 그에 따른 무용단이 국립무용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별로 구분하면 5개의 발레단(비아리츠 발레단

(Ballet Biarritz), 로렌 발레단(Ballet de Lorraine), 마르세이유 국립 발레단(Ballet national de Marseille), 노르 발레단(Ballet du Nord), 랭 발레단(Ballet du Rhin))과 14개의 현대무용단이 있다. 발레단에 비해 현대무용단이 그 수는 4배 가량 되지만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단체들은 중앙정부 즉 문화부의 지원은 물론 지방문화국을 포함한 도, 읍 차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문화의 집을 기반으로 연습실은 물론 행정사무국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CCN의 단장들은 1995년에 그들만의 협회를 발족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CCN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강시의 CCN 단장으로 있는 카린 사포르타가 첫 회장직을 맡았으며, 그후 레진 쇼피노를 거쳐 1998년 이후부터 장 클로드 갈로타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러한 2차 조직의 필요성은 다름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무용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적 불만해소의 방편이었다.

마르세이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CCN이 대도시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리옹, 보르도, 릴,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대도시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즉 피레네 중부지방에 있던 조세프 뒤실로 발레단도 12년의 운영을 끝으로 1992년 해산하였으며, 안 마리 레이노가 단장으로 있던 부르곤뉴 지방의 느베르 CCN이 1994년에 문을 닫는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1999년 기획안에서 '각 지방의 무용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CCN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99년은 개인 단체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좀더 시설면에서나 여건면에서 모두 무용가의 편의를 보아줄 것을 지적했으며, 구체적인 제안으로 '1998년 6개 단체에 이은 4개 단체를 포함시킨 45개의 개인 단체를 CCN의 산하에 포함시키며, 릴리와 라 파프와 비아리츠에 새롭게 자리 잡은 두 CCN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004년 10월 문화부 발표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CCN의 연습실 지원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4년 CCN 건물보수작업으로 10여 개의 연습실이 새롭게 설립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CCN 지원금액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작은 규모 무용단 지원도 적극적으로

프랑스 무용 연습실 지원정책 분석에 있어 CCN 조직을 중요하게 다루는 점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을 수용하기에 CCN의 수는 역부족이지만, CCN 행정체계 내의 연습실을 위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한다면 프랑스 정부의 창작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무용단체라는 여건이 조성되면 연습실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가장 먼저 해결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물론 프랑스에 국한된 예는 아니지만, CCN의 경우 국가 지원금 액수와 연습실의 수가 비례하지 않으며, 스탠프나 정단원의 수와 비교해 보아도 비례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체의 규모에 따라 연습실 수를 정하는 일방적인 행정이지 아니라 단체의 특성과 안무 성향까지도 고려한 배려가 잠재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국가는 CCN에 소속되지 못한 작은 규모의 현대무용단에 대한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CCN에서 제외된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까지 포함해 20개에 가까운 단체가 국가지원 선정단체(compagnie conventionnée)로 지정되어 있으며, 40여 개의 개인단체가 그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60여 개의 무용단체가 국가의 관리 하에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원선정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들은 어떠한가? 2001년의 경우 국가는 196개의 무용단체에게 총 4,270만 유로를 지원했다. 상세한 지원내역은 115개 단체의 신작프로젝트를 위해 1,050만 유로, 15개의 지원선정단체에게 1,268만 유로 그리고 그 외 66개 단체에게 1,950만 유로가 돌아갔다. 즉 지원선정단체 외의 120여 개 단체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선정단체에서 제외된 신생단체의 신작안무를 위한 연습실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국가는 대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무용 연습실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 내의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담당부서(Direction de la Musique, de la Danse, du Théâtre et des Spectacles, DMDTS)에서 '레지당스(résidenc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표 1〉CCN현황

단체이름	단장(임명연도)	창단 년도	예산(KF)		스텝 (명)	정단원 (명)	연습실
			2001년				
Ballet Projecca/ CCN d' Aix-en Provence	앙줄렝 프렐조카주 (1996)	1996	국가: 5,100 사: 1,300 지방: 2,450	도: 1,250 자본금: 9,158 잔고: 18,900	41	24	2
Centre national de danse d' Angers/ L' Esquisse	조엘 부비에, 레지 오바디아 (1993)	1978	국가: 3,333 사: 2,903 지방: 5,223 그 외: 100	도: 60 자본금: 3,260 잔고: 12,700	21	0	7
Ballet Atlantique Régine Chopinot	레진 쇼피노 (1986)	1984	국가: 4,200 사: 840 지방: 2,774	도: 588 자본금: 5,400 잔고: 13,900	25	12	1
CCN de France-Comité à Belfort	오딜 뒤북 (1990)	1990	국가: 2,500 사: 325 지방: 800 문예학술기금: 10	도: 830 자본금: 2,000 잔고: 7,500	12	1	2
Ballet de Biarritz/ CCN	티에리 말랑탱 (1998)	1998	국가: 1,500 사: 500 지방: 500 유협: 500	도: 500 자본금: 2,000 잔고: 5,500	5	0	2
CCN de Caen/ Basse-Normandie	카린 시포르타 (1988)	1984	국가: 2,600 사: 1,050 지방: 1,752	도: 30 자본금: 2,673 잔고: 8,075	30	6	1
CCN de Cretail et du Val de Marne	호세 몽탈보, 도미니크 에르비외 (1998)	1984	국가: 2,100 사: 969	도: 1,000 자본금: 6,146 잔고: 10,000	7	0	1
CCN de Grenoble/ J.-C. Gallotta Groupe Emile Dubois	장 클로드 길로타 (1984)	1984	국가: 2,900 사: 1,330 지방: 600	자본금: 4,358 잔고: 10,488	27	12	1
CCN du Havre/ Haute-Normandie	에르베 로브 (1999)	1989	국가: 2,041 사: 661 지방: 1,096	자본금: 1,100 잔고: 5,000	8	6	2
Ballet de Lorraine/ CCN	디디에 데상 (2000)	1978	국가: 7,700 사: 2,750 지방: 6,150	자본금: 3,000 잔고: 20,000	63	35	3
Ballet national de Marseille	프레데릭 플라랑 (2004)	1972	국가: 8,173 사: 2,750 지방: 2,884	자본금: 7,673 잔고: 26,903	73	45	2
CCN de Montpellier/ Languedoc-Roussillon	마틸드 모니에 (1994)	1984	국가: 2,954 사: 429 지방: 1,967 지구: 3,717	도: 170 자본금: 3,717 잔고: 10,262	16	7	3
Ballet du Rhin/ CCN de Mulhouse	베르트랑 다 (1997)	1985	국가: 6,000 사: 9,600 지방: 1,600	도: 400 자본금: 3,100 잔고: 20,700	46	34	3
CCN de Nantes	클로드 부루마슈/ 벤자맹 라바르슈 (1992)	1992	국가: 1,500 사: 1,400 지방: 350	자본금: 3,500 잔고: 6,750	14	7	1
CCN d' Orleans	조셉 나주 (1995)	1995	국가: 1,500 사: 880 지방: 450 그 외: 260	도: 237 자본금: 4,848 잔고: 8,188	6	0	1
CCN de Rennes et de Bretagne	카드린느 디베레스 (1994)	1978	국가: 2,180 사: 1,682 지방: 886	도: 237 자본금: 2,133 잔고: 7,118	12	5	2
CCN de Rilleux-la-pape/ Compagnie Maguy Marin	마기 마랭 (1998)	1998	국가: 2,550 사: 1,400 지방: 600 그 외: 300	도: 300 자본금: 4,000 잔고: 9,150	16	10	1
CCN de Roubaix/ Ballet du Nord	마리조 들랑트(1995)	1985	국가: 4,645 사: 2,180 지방: 4,360	도: 872 자본금: 2,000 잔고: 12,056	50	28	4
CCN de Tours	다니엘 라리외 (1994)	1989	국가: 2,240 사: 2,930 지방: 1,000	도: 600 자본금: 2,391 잔고: 9,161	12	17	1
CCN de Nevers	안 마리 레이노(1985)	1985-1986	-	-	-	-	-
Ballet Joseph Rusillo Midi-Pyrénées	조셉 루실로(1980)	1980-1982	-	-	-	-	-

〈표 2〉거리예술 지원 현황

거리예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단체수	지원금(유로)	단체수	지원금(유로)	단체수	지원금(유로)	단체수	지원금(유로)
지원국								
DMDTS (연습실과 제작지원)	17	285,080	19	285,080	29	582,356	27	582,000
DRAC	30	392,404	35	452,774	29	511,760	20	240,886
지원항목								
지원선정단체	22	1,541,260	23	1,599,190	27	1,919,221	29	2,007,221
신작지원	47	677,483	54	737,853	58	1,094,116	47	822,886

신작창작을 위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습실 대여가 가능하며, 이 연습실은 무용단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3년간 사용도 가능한 운영체제다. 모든 서류 등록, 심사는 지방문화국(DRAC)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발 기준은 기관마다 차이를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통일된 사항은 찾을 수 없지만 매년 9월 여름휴가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기간이 시작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국가지원금이 신작프로젝트, 무용단, 공연 등 세 가지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 지명도가 크게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대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무용단체는 지속적인 대여를 위해 작품의 완성도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국가는 이를 통해 문화수준 향상이라는 우회적 성과를 보게 된다.

한편 단체를 형성하기 전 준비단계에 있는 아마추어 무용가를 위해 문화부는 1998년 국립무용센터(Centrenational de danse, CND)를 출범했다.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진 이 기관은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이틀리예가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전문 무용단체로 나아가기 위한 아마추어를 위한 연습실 공간은 지속적인 기관생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2월 르노 돈디외 드 바브르 문화부 장관이 발표한 거리예술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무용을 포함한 타예술 장르 전반에 걸친 실례이기는 하지만, 예술창작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지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드 바브르 장관은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온 거리예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형예술, 음악, 무용을 포함한 공연예술의 거리축제참여를 적극 장려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백여 참여단체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리예술협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전략은 드 바브르 문화부 장관의 정책발표에 따라 '거리예술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표 2>에 나타났듯이 연습실 지원에 있어 지방문화국이 아닌 문화부 내의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담당부서인 DMDTS이 맡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국가가 적극 장려하는 거리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국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 즉 창작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실과 제작지원을 중앙조직에서 감

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2000년, 2001년에 비해 2002년과 2003년에는 두 배 가량 지원금액이 증가했다는 점은 지방문화국 예산의 삭감과 비교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국가의 추진 방향이 드러남과 동시에 정책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지원선정단체의 증가에 비해 월등한 예산증가는 작품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습실의 주인은 무용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무용단 연습실은 파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가 1993년부터 2년간 몸담고 있었던 리스에 당스리 마르크무용단도 파리에 기반을 둔 단체임에도 연습실은 파리 외곽 알포르빌(Alfortville)에 있었다. 오래된 농구장을 개조한 창고 형식의 볼품 없는 건물이었지만 안무를 위한 바닥시설이나 높은 천장 등은 더 이상의 조건이 없을 정도로 무용단에 적격이어서 안무가와 단원 모두가 만족했다. 지방문화국을 통한 알포르빌의 지원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었다. 그런데 프랑신 랑슬로 단장이 이 무용단을 해체하고 그 후계자인 베아트리스 마생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면서 연습실을 포함한 행정상의 변화에 우려가 없지 않았다.

더욱이 무용단 이름을 레 페트 갈랑트로 바꾸었고 단장 또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 무용단은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알포르빌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습실을 중심으로 한 단체의 소재지에 대해 프랑스 중앙정부나 지방문화국은 관대하리만큼 한 곳에서 뿌리내리기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형성한 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고 단체이름이 바뀔지라도 단체가 그 동안 쌓아온 기반이 곧 연습실을 포함한 무용단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룩되었다는 점을 철저히 존중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 연습실 대여를 위한 지원액의 규모나 심사 기준보다도 프랑스인들이 추구하는 예술가 중심의 꾸준한 지원체제이다. 무용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는 그 터전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가 이를 잘 실천한 덕에 지금의 문화대국을 이룩한 것이 아닐까. 🌱